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2월 9일(주일) 제128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한 예배지침

- 1) 모든 성도는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CGNTV와 유튜브를 활용해 주십시오.
- 3) 예배 시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교회 내에서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예방을 위해 당분간 성찬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누리교회도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주일(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지침을 발표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지침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 손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 출입을 자제하고,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원하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도 좋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났을 때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성찬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예배시간

을 피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2, 3부, 도곡교육관 1, 2부 예배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서빙고 1부 예배, 양재 1부 예배와 4부 예배, 도곡교육관 3부 예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2월 1일)과 금요일(2월 7일)에는 온누리선교재단이 교회(예배당, 사무실) 소독을 했다. 온누리교회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손소독제는 예배당 입구(주일예배, 차세대, 대학청년부, 국제부 등), 목

회행정실, 교회 로비, 식당 출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다.

차세대사역본부는 2월 한 달 동안 캠퍼스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2020년 차세대 패션(Passion)캠프 'School Changers: I am Crazy'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학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추이를 살핀 다음 2월 18일경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썬터뷰>

'CGNTV SOON' 채널, 청년 고민 해결 프로그램

CGNTV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썬터뷰>를 2월 6일부터 선보였다. 유튜브 'CGNTV SOON'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썬터뷰>는 크리스천 멘토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인생의 비전과 방향을 잡아 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애, 결혼, 진로, 신앙 등 청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남국 목사, 개그우먼 조혜련, 이성호 목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CGNTV SOON' 채널에서는 말씀의 핵심만 짚어 담은 '3분 메시지', 다양한 멘토들의 진심 어린 간증과 연애, 찬양사역자들의 인생 찬양을 담은 '컬처클럽', 삶과 신앙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하우스쿨'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11:17-37(2월 13일 본문)

본문 주제: 공감(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영상제목: 두 개의 숯불 - 정갑신 목사

내용: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심방하십니다. 예수님은 의기소침해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숯불과 같이 용납과 공감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게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아픔이 회복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https://youtu.be/Q3nAv-CGFkY>

▶QR코드



단순한 엔젤트리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는 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엔젤트리가 이웃들에게 또 한번 큰 감동을 선물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엔젤트리가 보낸 준 선물을 받은 이웃들은 하나 같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에게 보낸 선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흘렸고, 한겨울을 거리에 서 보내고 있는 여자청소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옷이 전달되었다. 2019-2020년 엔젤트리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org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 길 위의 청소년들에게 엔젤트리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매년 12월이 되면 온누리교회에는 어김없이 엔젤트리와 사연게시판이 세워진다. 2019-2020년 엔젤트리에는 사연 2469건이 접수됐다. 낯선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이주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 달라, 남한사회에 열심히 적응 중인 탈북민을 도와달라는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사연뿐이다.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많다.

빨간 장미와 케이크 그리고 패딩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바울 형제(가명)는 엔젤트리의 힘을 빌려 사랑하는 어머니께 용기 내어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인 자신마저 수감되면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진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동료수감자에게 엔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펜을 들었다.

“항상 성탄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케이크를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빨간 장미꽃과 케이크를 저희 어머니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바울 형제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명)에게는 패딩이 도착했다. 박순자 씨는 엔젤트리 사연에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다. 뒤늦게 큰아들의 진심을 알고 얼었던 마음이 녹았다.

“아들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 제가 같이 못 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보냈어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식품은 상할 우려가 있어 안 된다고 하셔서 패딩을 부탁드렸어요. 선물 받은 패딩은 매일 입고 다니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지만 선뜻 선물 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전해진 사랑

이번 엔젤트리에서는 성도 개인이 신청한

사연보다 단체나 기관에서 보낸 사연이 더 많았다. 요양원, 청소년시설, 다문화센터, 지역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1천여 건 이상의 사연을 보내왔다.

관악늘푸른교육센터도 엔젤트리에 사연을 보냈다.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길 위의 여자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함께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전수진 센터장은 이번 엔젤트리에 한겨울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외투를 선물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했다. 단순히 선물을 보내주는 행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겨울외투와 트레이닝복 등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려고 고심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손수 써서 보내주신 편지들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사랑한다’, ‘기도한다’,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선물 받은 청소년들이 꼭 감사하다고 인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 나눔

엔젤트리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신청한 사연이 더 많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사연이 많아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선 권사(관악늘푸른공동

체)처럼 말이다. 김 권사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만난 최강민 어르신(가명)의 사연을 엔젤트리에 보냈다. 최강민 어르신은 생활고 때문에 매월 후원금 천 원을 받으려 경기도 부천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오시는데 우연한 기회에 오병이어스쿨(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교육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김의선 권사와 일대일제자양육까지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엔젤트리에 최강민 어르신 사연을 소개하면서 쌀 10kg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어느 성도님께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최강민 어르신께서 그 쌀을 받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엔젤트리에서 소개하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숨어있는지 몰라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엔젤트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2021년 엔젤트리는 10월부터 이웃들의 사연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으면 좋겠다.

엔젤트리는 단순한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다. 사랑과 관심,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교회가 직접 찾아가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세상에는 없는 사랑 나눔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관심,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 소중한 친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선물은 엔젤트리가 책임질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엔젤트리 참가 후기

감사의 눈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 진행한 엔젤트리 행사에 선물을 요청했던 재소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아내와 딸이 접견을 와서 가장 먼저 전해준 소식이 엔젤트리 행사에서 받은 선물 이야기였습니다. 딸의 책가방을 요청했는데 딸(중1)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그 기쁨이 배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딸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뻐하

며 웃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사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온누리교회와 사회선교본부, 그리고 엔젤트리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민주 아빠(서울구치소)

엔젤트리는 ‘햇팩’

엔젤트리는 추운 겨울 두 손에 쥐어진 따뜻한 햇팩이다. 나는 중학생 자녀에게 신발을 보내달라는 사연을 뽑았는데 품질, 색상, 모양 등을 정하려고 이를 동안 고민했다.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연대상자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정말로 기뻐할지를 고민하면서 엔젤트리에 참여했을 것이다.

매년 엔젤트리에 접수되는 사연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에서 온 사연들

이다. 또한 접수된 사연의 정보들이 단편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선물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마도 사연대상자와 깊이 있는 교제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선물을 발송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올해는 이웃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연말에 직접 포장한 선물을 들고 방문했으면 좋겠다.

/ 김현주 집사(사회선교본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틀림없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린 영혼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완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셨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독수리는 먹잇감이 나타나면 무섭게 공격합니다. 둘째, 독수리는 자기가 보호하고자 대상을 날개에 얹어 나르듯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은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려면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상태

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개입과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사탄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일하지 못합니다. 꼭 불순종하는 인간을 통해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서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보다 무서운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져오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과 제사장 나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

출애굽기 19:1~6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가 되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안과 자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5-6절).

모든 나라와 온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창조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째, ‘특별한 내 보물’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소유’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치 때문에 보물이 됩니다. 첫째, 부여된 가치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때로 부모에게 힘겨운 고통을 준다 해도 부모에게 자녀는 보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한 가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물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물인 것입니다. 둘째, 지불된 가치를 통해서 보물이 됩니다. 지불된 가치에 따라 보물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셋째, 쓰임 받을 때 가치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특별한 보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를 매우 값진 보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의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뿌림을 받아 정결케 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

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벧전 2:9-10).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 된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mercy)와 은혜(grace)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도록 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주장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업, 영원한 생명 등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됨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권력과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민족과 온전한 순종

‘거룩한 민족’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3편에 계속〉**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선(善)함은 위대한 일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봉사하고, 달란트 아낌없이 나누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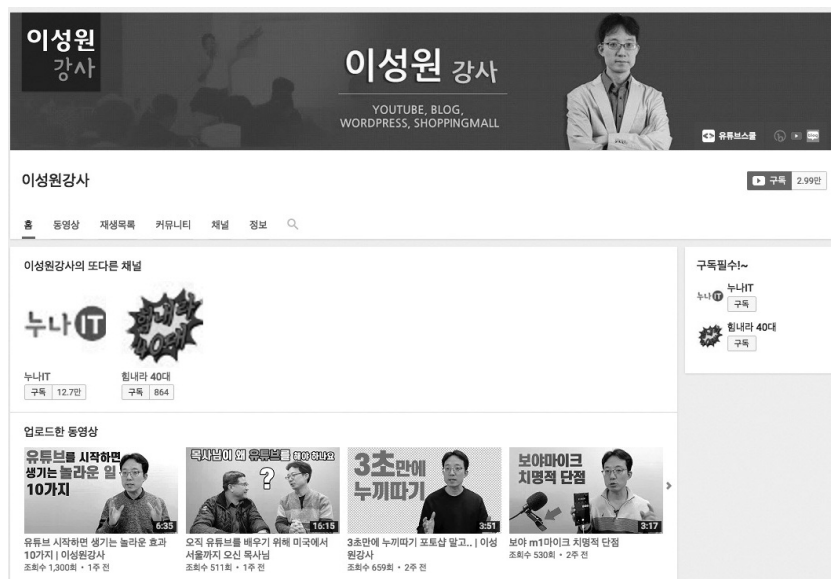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 말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선함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대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습관처럼 선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여기 이 사람들을 주목해보자. 김정호 집사(고양은평공동체)는 봉사가 일상이자 습관이고, 이성원 집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이 낙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 아닐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김정호 집사가 지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때 평수 배너를 손수 제작해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성원 집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사진 오른쪽).



김정호 집사(고양은평공동체)의 주일은 너무 바쁘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주차봉사를 한다. 10년이 훨씬 넘게 매주 주일 주차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오전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는 요양원으로 향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요양원이 집에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봉사할 겸 들르는 것이다. 김 집사는 요양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직접 만든 마술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준다. 손뼉치고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한다. 매일 마지막 주에는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을 섬긴다. 이웃사랑팀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동병고동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팀원들을 차로 태워다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장애인 가정공동체 ‘한나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한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한나의 집 노후된 곳을 살피고 손수 고치기도 한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김정호 집사의 또 다른 이름
습관처럼 행하는 ‘구제, 공훈, 섬김’

김정호 집사의 주일이 일년 열두 달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제, 공훈, 섬기는 습관 때문이다. 구제, 공훈, 섬김이 그의 삶이자 습관

이다. 김 집사는 왜 이렇게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걸까?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제 달란트가 공훈이거든요.”

구제, 공훈, 섬김의 대명사 김 집사가 지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에 요로결석 수술을 받으면서 크게 회개했다고 한다. 김 집사는 새벽제단을 쌓으러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유쾌함과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요즘 핫한 평수인형 분장을 하고, 응원메시지를 적은 배너를 만들어서 주차안내를 했다.

“갑자기 요로결석으로 입원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평수인형 분장을 하고, 배너를 만들어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 잘 섬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 열심과 욕심이 더해졌더라고요. 봉사는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 집사가 건강하게 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

“봉사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하면 힘이 들거나 대단한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1인1사역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캠핑 이성원 집사, IT전문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이성원 집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이다. 이성원 집사는 ‘누나(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IT’, ‘이성원 강사’, ‘힘내라 40대’ 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동기부여와 대리만족을 동시에 선물하고 있다.

‘이성원 강사’ 채널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한 채널이다. 유튜브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장비사용 리뷰 및 추천 등을 가르쳐준다. 이성원 집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의 선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누나 IT’는 IT 초보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 꿀팁 채널이다. 오피스 프로그램(엑셀, 파워포인트) 사용법,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iPad) 사용법, IT 제품 사용 리뷰 등 알면 아주 유용한 IT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집사가 처음 만든 유튜브 채널이자 구독자 수 12만 7천명을 보유한 정도로 널리 알려진 채널이다.

‘힘내라 40대’ 채널은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어설픈 40대 남성들의 소소한 일상 도전을 다

루고 있다. ‘바늘 도전이 소 도전한다!’를 모토로 40대 아재의 운동, 다이어트, 새해 목표 도전기가 주를 이룬다. 줄넘기 1000개 한 달 도전기, 플랭크 30일 도전, 홀라후프 1000개 도전기, 매일 2만보 걷기 도전기 등이다.

이성원 집사는 IT전문 강사다. 그가 유튜브 채널을 세 개나 운영하면서 유튜브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튜브는 접근성이 좋아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또 방송을 하려면 고가의 전문장비와 스튜디오를 갖춰야 하지만, 유튜브는 개인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더욱 유튜브를 활용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이단들이 더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은 이미 이단들이 꼭 잡고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유튜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열매 맺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유튜브를 배우기 위해 이 집사를 찾아 한국으로 날아오기도 했다. 2020년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왜 교회가 유튜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닦은 길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직접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에 대해 장벽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IT 전문가인 그가 원래는 컴퓨터 전문 버튼조작 제대로 누를 줄 모르는 캠핑이였다는 것이다.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여행사에 취직한 적이 있었는데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여행사 직원들이 제가 젊은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잘 다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할 줄 알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수치감과 모욕감을 경험하면서 생각했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구나.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그렇게 이 집사는 캠핑에서 IT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동기 부여가 된 당신을 제 올해의 멘토로 임명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댓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희망을 주는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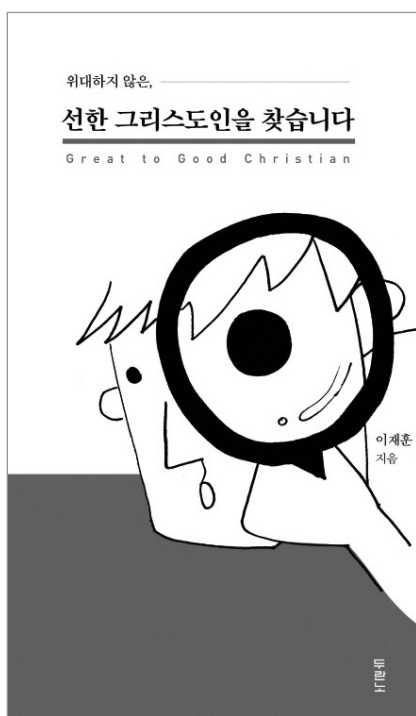
이성원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선함이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주변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무언

가를 해야지’라며 무리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선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선한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은혜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 받았다!”

선(善)에 대한 이재훈 목사의 묵상과 제언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재훈 목사 저 | 두란노 | 10,000원

‘선(善)하다’는 뜻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좋다’, ‘착하다’, ‘선량하다’이고, 반대말은 ‘모질다’, ‘악랄하다’, ‘흉포하다’ 등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다. 너무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눅 10:25~37) 때문이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36~37).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보살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비유하실 때 선하다고 표현하셨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의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1~15).

바로 이 ‘선함’에 대해 곱씹어보는 책이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쓴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이다. 영어 제목은 ‘Great to Good Christian(위대함에서 선한 크리스천으로)’이다.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교회, 선한 목자

책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다’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선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위대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시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선한 양심의 순례자들이다.”

“마틴 루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물음을 거꾸로 뒤집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날 것이다. 그때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두 번째 파트는 ‘나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다’이다. 선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묵상과 제언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질투였음을 알 수 있다.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한 유대 지도자들의 본심은 그분을 향한 질투였다. 그들의 악함은 역사를 관통하여 이 시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도 손길을 뻗치고 있다. 오늘날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질투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수없이 유다의 배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단, 신학교, 교회, 선교단체 등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에게서 가롯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이다. 교단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돈이 영향을 미치는 일부부터 회개해야 한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선교와 나눔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로를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 안에 있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과 기독교적 가치는 남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 내부의 남비현상부터 제거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려면 이기적 공동체가 아닌 소금 같은 축매제로 녹아들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각 지역에 있는 이주민, 장애인, 노숙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교회를 본받게 되고 대한민국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파트는 ‘권력을 내려놓은, 섬기는 목자를 원한다’이다. 성도와 교회, 사회, 나아가 나라를 이끌 리더의 역할과 소명을 제언하고 있다.

“목자들에게 이 고귀한 소식(예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기업가이거나 전략가여서가 아니라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키던 양 떼도 버려두고 서둘러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은 메시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빨리 반응하고 서둘러 가서 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휘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교회는 이 폭풍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워야 한다.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폭풍이 더 거세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교회가 영적 선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오직 폭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 뿐이다.”

“교회 개혁에 대한 많은 제언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과제는 목회자

들이 세상의 권력과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상징으로 어린아이를 내세우셨다(마 18:1~4). 철없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권력을 사용하는데 낯설다. 세상적인 권세를 이용할 줄 모른다.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직 권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청지기 의식이 회복된다면 교회개혁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지도자로 끝맺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내가 그 땅을 밟느냐 밟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보는 것까지라면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후계자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행복해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위대함을 넘어 선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선한 지도자들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리더가 리더답게 되기 위해선 위대함이 아니라 선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바라본다. 그 비전의 위험은 위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적인 의로 선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으로의 부름이다. 악한 원리를 의지하는 이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선함이 곧 성공 그 자체임을 보여줘야 하는 부름이다. 이 책의 원고를 정리하며 가장 많이 떠오른 분이故 김영길 한동대 학교 초대총장님이다. 김영길 총장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그 삶은 수많은 젊은이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다. 김영길 총장님을 기억하며 이 책이 불씨가 되어 제2, 제3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당신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선물

2. 양재 온누리 상담센터

마음의 병은 꺼내야 낫는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경험하는 ‘양재 상담센터’

온누리교회에는 선물 같은 장소들이 많다. 그곳에 가기만 해도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소소한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쉼과 치유 그리고 회복은 덤이다.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 더욱 특별하다. 그곳에 가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 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 특별한 장 소는 바로 양재 온누리 상담센터(이하 양재 상담센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양재 상담센터는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우리 모두 환자다. 감기를 앓듯 마음의 병은 수시로 온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가 아프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이 대사처럼 우리 모두는 아프다. 마음의 병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른다. 그만큼 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음의 병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마음의 병을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꺼내야 낫는다. 내 입술로 아픔을 토해내는 순간 그 아픔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토해내야만 한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신건강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형태의 치료가 주를 이룬다. 또 하나는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만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심리상담치료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일을 두려워한다. 정신질

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마음의 병이 신앙의 부족이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삶에서 온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숨긴다. 마음의 병은 바로 거기서 온다. 숨기고, 감추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서 생긴다. 덮어두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마음의 병이다.

또한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한 여름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에도 마음의 병이 쉽게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재 상담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 현재 당면한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곳에 가면 문제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도 괜찮고,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다. 그 누구든 사랑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무엇이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유능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심리상담치료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있다. 일반상담, 회심상담, 기독교상담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상담, 회심상담, 기독교상담

일반상담은 심리학이 바탕이다. 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 및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온전한 회복과 치유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회심상담은 ‘성경적 상담’이라고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회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이자 접근이다. 따라서 회심한 성도를 대상으로만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옳은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회심상담은 그 폭이 좁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심리상담치료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담자였다면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일반상담과 회심상담 그 중간에 기독교상담이 있다. 양재 온누리 상담센터는 바로 이 기독교상담을 하는 곳이다.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 회심상담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문적인 상담접근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원리를 심리상담치료 과정에 적용하면서 내담자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접근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발견하고, 적용한다. 다만 기독교상담자는 반드시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내담자는 크리스천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제한이 없다.

신종아 팀장(양재 상담센터)은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양재 상담센터 모든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상처와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돕는다

기독교상담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을 되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양재 상담센터에 가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양재 상담센터에 가면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전문상담사들이 있다. 모두 검증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양재 상담센터 상담사들은 상담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사역하는 봉사자들이다. 내담자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올려주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 상담센터에 와 상담을 하고 아팠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양재 상담센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내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웃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다. 심리상담치료 이후에 부부학교, 프리덤스쿨, 내적치유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회복사역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준다. 공동체에서 더 깊은 회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양재 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집단, 미술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MBTI, MMPI-2, 애니어그램, SCT, U&I 학습유형검사 등의 심리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상담, 법률상담, 의료상담, 중독상담 등도 하고 있다. 이 모든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심리검사 비용 제외).

양재 상담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 비신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양재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상담실 이용안내

- 상담실 위치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1층 한동을 앞
양재 온누리교회: 1층 원형 커피숍 자동문 안쪽
- 상담분야
심리상담(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심리검사, 법률상담, 인터넷 중독상담, 세무상담, 의료상담 등
- 문의 및 사전예약
서빙고 02-793-2997~8
양재 02-570-7536~7
- * 모든 상담 사전 예약 필수

항구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교역사

2. 목포항

목포항에 스며든 복음 그리고 사랑

유진 벨 선교사, 윤치호 전도사, 윤학자 여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그 지리적 특성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항구에는 저마다 선교역사가 서려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를 다녀보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선교여행이 가능하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바다 건너 조선에 오기까지 험난한 여정과 그 속에 숨어 있는 눈물겨운 사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 민족사랑과 나라사랑도 만나볼 수 있다. 그 두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목포항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유진 벨 선교사가 세운 전라남도 광주 지역 최초 교회인 '목포양동교회' (위), 윤치호·윤학자 부부와 7명의 어린이를 모습이 새겨진 사랑의 가족 기념비(아래).

항구에는 예나 지금이나 얽힌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다. 항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못 있어 하염없이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고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서부지역의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목포항 역시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다. 목포항을 배경으로 한 가슴 절절한 사랑 노래들이 많다. 그 수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으뜸은 한국인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 아닐까?

호남선교의 아버지 '유진 벨'

목포항도 다른 항구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목포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와 섬들을 오고가기에 유리해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1897년 목포항이 개항한 이후 호남지역 선교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호남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진 벨(Eugene Bell, 한국명 배유지) 선교사도 그 시절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목포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00년이 훌쩍 넘는 교회가 하나 있다. 차곡차곡 돌을 쌓아

올린 석조건물 틈 사이마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전라남도 광주지역 최초 교회인 '목포양동교회'는 유진 벨 선교사의 선교활동 무대였다. 유진 벨 선교사는 1896년 2월 목포에 들어와 윌리엄 레이놀즈(William David Reynolds)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를 매입하고 선교기지를 구축했다. 항구와 가까운 양동 언덕에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목포양동교회의 초석이었다. 유진 벨 선교사는 그 이듬해부터 거리에서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던 매사인 변장연 조사와 함께 장날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다. '서양귀신'이라는 구박을 받고, 놀림도 당하고, 돌을 맞아도 꾀스스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유진 벨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사랑과 선교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진 벨 선교사는 목포양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타 지역과 외딴 섬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과 소책자를 보급했다. 유진 벨 선교사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호남지역에만 50여 개가 넘는다. 유진 벨 선교사가 목포를 떠나 전도여행을 하던 1901년 4월 어느 날,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 로티 위더스푼 선교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급히 목포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로티 위더스푼 선교사는 끝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다섯 살 짜리 아들과 두 살짜리 딸을 품에 안고 숨을 거뒀다. 로티 위더스푼 선교사는 낯설고 외로운 이국땅에서 마지막까지 선교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생전에 쓴 편지에 유진 벨 선교사 못지않은 조선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다.

“나는 남편이 선교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가사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힘쓰고 있다.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고, 함께 사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나의 선교사역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해낼 것 같지 않으나 해야만 한다. 나는 언제나 향수에 젖지만 한국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는다.”

거지대장과 한국고아의 어머니

목포양동교회에서 나와 유달산 자락을 따라 걷다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인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자연을 벗 삼아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의 첫 번째 고아원 '공생원'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다.

공생원은 목포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세운 고아구제시설이다.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윤치호 전도사는 목포의 한 냇가 다리 밑에서 부모를 잃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고아 일곱 명을 발견한다.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윤치호 전도사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공생원이 그렇게 시작됐다. 윤치호 전도사는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 식당의 잔반을 수거해 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걸도 했다. 윤치호 전도사의 별명은 '거지대장'이었다.

윤치호 전도사가 돌보는 고아들이 많아질 무렵 공생원에 한 일본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는 다우치 치즈코(田千鶴子, 한국 이름 윤학자)다.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목포항을 밟았다. 그 무렵 윤학자 여사는 조선총독부 목포부청 하급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왔다. 여덟 살 무렵 조선에 들어와 일본인들의 만행을 수없이 목격했던 그녀는 밤낮으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만행을 속죄하고 싶었다.

윤학자 여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바로 목포정명여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했다. 부모를 잃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좀처럼 웃지 않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웃음을 되찾

아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을 어여쁘게 여긴 고등학교 은사가 공생원 봉사를 제안했다. 윤학자 여사는 공생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음악과 일본어를 가르쳤다. 윤학자 여사는 윤치호 전도사의 성실함과 고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높은 이상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윤학자 여사는 남편 윤치호 전도사를 도와 정성으로 고아들을 돌봤다. 빈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해서 고아들을 먹였다. 슬하 4남매를 공생원 아이들과 함께 키웠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도록 온 정성을 쏟았다. 윤학자 여사는 고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전염병과 배고픔에 고아들이 죽기라도 하면 손수 수의를 지어 입히고 하룻밤 꼬박 옆에 있어주었다. 그렇게라도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곤 윤학자 여사의 사랑이었다.

공생원 아이들을 향한 윤학자 여사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이었던 윤학자 여사에게 쏟아진 따가운 시선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꾀스스하게 공생원을 지켰다. 한국전쟁 중에 남편 윤치호 전도사가 행방불명 됐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공생원 아이들과 함께 했다. 윤학자 여사는 30여 년 동안 3천여 명의 고아들을 품고 돌봤다. 윤학자 여사는 일본인이었지만 한복을 입고, 한국말을 쓰려고 노력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등 눈물 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3천여 명의 지식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공생원을 지키던 그녀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천국으로 떠나는 길을 3천여 명의 아이들과 3만여 명의 목포 시민들이 눈물로 배웅했다. 목포 최초의 시민장이었다. 공생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윤학자 여사와 윤치호 전도사의 자손들이 3대째 섬기고 있다. 윤학자 여사와 윤치호 전도사의 국경과 가난을 뛰어넘는 사랑이야기가 공생원 윤치호·윤학자기념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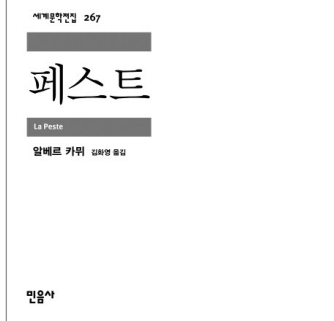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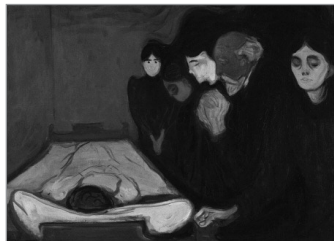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 목포양동교회**
목포역 3번 버스 승차 - 목포중앙식료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4분
목포항 60번 버스 승차 - 대성농협 정류장 하차 - 도보 10분
*** 공생원**
목포역 1번 버스 승차 - 공생원 정류장 하차
포항 1번 버스 승차 - 공생원 정류장 하차



책 읽어주는 목사

페스트의 시대



페스트

알베르 카뮈 지 | 민음사 | 13,000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상이 떠들썩한 요즘, 나는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골랐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다.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북아프리카 해안의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페스트가 발생한다. 도시는 폐쇄되어 서서히 죽음의 도시로 바뀌고 사람들은 갑작스레 유배지에 갇혀버린 신세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세상을 대표하

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부조리를 애써 외면하고 철저하게 혼자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 페스트 상황에 가학적 쾌락을 느끼며 그것을 인생이라 부르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범죄자는 치안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세상을 자유롭게 즐기기까지 한다. 등장인물 중에 신앙의 힘으로 역병을 극복하려는 신부 파늘루가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불행을 겪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친다. 사람들은 의외의 발언에 놀라 신부를 쳐다본다. 신부는 말을 이어간다.

“페스트가 창궐하게 된 이유는 반성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악과 타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며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했던 청중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신의 구원과 기독교적 희망을 이때만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흐느낀다. 페스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성과 전염병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설에는 또 다른 인상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리유 박사와 함께 페스트 퇴치에 앞장섰던 서기관 ‘타루’다. 그는 과거 불쌍한 범죄자를 구원하지 못한 검사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 허무주의에 빠졌던 사람이다. 그

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페스트와 열심히 싸우고 있었지만 실상 내가 페스트 환자였다는 것을. 내가 환자임을 알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부실대처에 대해 비난하고, 행여나 자신이 감염될까봐 노심초사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혼란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혹시 남을 감염시키는 전파자가 아닐까 조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는 계속 말한다.

“나는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리유 박사가 되묻는다.

“신은 믿지 않으면서?”

타루는 “그것이 자기의 고민”이라고 답한다. 타루는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알베르 카뮈는 더불어 무신론적 실존철학의 대부이다. 그는 부조리에 직면한 여러 유형들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실존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타루라는 인물로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페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세

상은 죽음에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면 모두 실존적 노력을 해야 한다.

소설의 결말은 페스트를 이겨낸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군중이 모르는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구나 옷장 속에 꾸준히 살아있어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문구로 끝난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이 생 각난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치사를 운운하며 전파자의 경로까지 파악하고 대비하지만 정작 치사를 100%인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

저자 카뮈는 그 문제의 해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까지는 갔지만 소설 안에서 예수 보혈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카뮈는 소설 속 분신인 타루처럼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실존적 삶을 살았으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다. 페스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 해요”

답: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보일 때가 있다. 나는 그 기색을 알아차리면 될 수 있는 대로 짧고 지루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변명하면서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면 얼른 멈추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리고 화제를 바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눈다. 그러다 기회가 다시 엿 보이면 복음으로 돌아가 전한다. 결국 그 전도 대상자는 마지못해 믿겠다고 영접한다. 이렇

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마음의 기쁨보다 불편함이 있고, 의문이 들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 복음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 대상자가 절박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심해서, 전도자의 영적 준비가 부족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전했던 복음이 온전하게 좋은 소식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만일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라며 구원의 확신을 질문한다. ‘만일’이라는 가정이 전제된 질문이지만 그들은 죽음, 죄, 지옥, 회개, 영생이라는 단어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뿐 더러 관심도 없다.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며 마음을 닫아 버린다. 사람들은 사후보다 현실문제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짐들이 많아서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조차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사후 삶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다루어야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하나님과 친밀한 삶인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도 계속된다. 영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소식이다.

전도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도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좋은 소식이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된다.

장독을 들추면 그 아래 숨어 있던 벌레가 빛을 피해 얼른 도망가 버린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갇혀 살던 자에게 갑자기 강렬한 빛을 비추면 도망간다. 그러므로 때로는 ‘죄인’이라는 단어보다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로 서서히 빛을 비추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 수 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부담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손양원 목사,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다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문득 손양원 목사가 생각났다. 손양원 목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양원 목사는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하셨다. 손양원 목사의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나병환자들을 지극정성 돌볼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일평생 목회하며 나병환자들을 돌봤다. 나병환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나병환자들의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도 했다. 손양원 목사는 당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피하기 바빴던 나병환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나병환자들을 위한 손양원 목사의 기도를 보면 손 목사가 나병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들

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를 꼽으라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일일 것이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손양원 목사는 슬픔에 잠긴 것도 잠시 두 아들의 장례예배에서 감

사기도를 드렸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죽인 반란군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다. 울며 불며 반대하는 딸 손동희에게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백 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 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강철민(안재선)

을 죽인다면 그것은 네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손양원 목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다. 손양원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이유도 그가 일평생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손양원 목사의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천 대받는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죽도록 미울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했다. 그의 일평생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의 답이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남편과 아내 딱 둘인 신혼부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신혼부부에게도 가정예배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신혼 첫날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다. 신혼여행에서 드리는 첫 번째 가정예배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기쁨,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제로 다루면 좋다. 이제 막 가정을 이룬 만큼 깊이 있는 나눔과 미래의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정’, ‘남편’, ‘아내’를 주제로 가정예배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주제

별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들도 읽으면서 성경적 가족관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성경 말씀들이 있다면 순모임이나 공동체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효과적이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가정예배에 도움이 되는 서적으로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팀 켈러 저), <사랑하는 가족에게>(하용조 저)를 추천한다. 신혼부부 나름대로 성경적 가정관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 가정예배 주제는 ‘재정’과 ‘

신혼부부를 위한 가정예배

자녀 양육’이 좋다. 부부다툼이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부부도 마찬가지다. 재정관이나 자녀양육관이 다르면 큰 다툼이 날 수 있다. 실제 크리스천 신혼부부들이 낭비나 사치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금 금액 등으로 다투기도 한다. 성경적인 재정관을 올바르게 세우고, 현명한 재무계획을 세워보는 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부부의 모든 관심사는 자녀에게 쏠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부

부의 신앙전수 방법과 양육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시절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 책 <같이 있는 부모, 가치있는 아이>(유학익 저), <성경적 부모교실>(이기복 저), <완벽한 부모는 없다>(폴 트립)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혼부부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가정예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신혼초기 많이 하는 집들이를 전도행사로 만들면 아주 효과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7장 55~56절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메시지

초대교회 당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과연 스테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고 말씀하실까요? 첫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행 6:8).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성도 가운데 모범이 되는 스테반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스테반은 재정과 구제사역을 감당했고,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맡겨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서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

장 55절을 보면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테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테반의 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테반은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드리

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듯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2월 9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세상을 바꾸다’

2월 27일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콘서트홀



이성원 강사가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제는 동영상 마케팅이 대세다!” 한 달 글로벌 유튜브 이용자 수 19억 명, 한국인 유튜브 시청자 수 3122만 명, 한국인이 한 달 동안 가장 오래 쓴 앱(이용 시간 317억분),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 업로드 되고 있다. 유튜브의 위력이 대단하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도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목)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동영상 강의 ‘유튜

브로 세상을 바꾸다’를 개최했다. 유튜브와 동영상 마케팅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실용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 교역자, 사역자 3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6일에는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 열광하는가?’, ‘기억에 남는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채널 만들기 기본세팅 5단계’, ‘영상 편집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등을 주제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성원 집사(강동 온누리교회)가 강의했다. 동영상 강의 ‘유튜브로 세상을 바꾸다’는 2

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콘서트홀에서 계속 이어진다.

윤정권 성도(안산M센터)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이주민들에게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야 도움이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했고, 조경호 형제(SNS공동체)는 “창의적이고 분별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스천 유튜버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onnurismart@gmail.com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농어촌선교팀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성 칠곡교회 김재홍 목사 감사헌금 보내

화성 칠곡교회 김재홍 목사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 감사헌금 223만 2천 원을 보내왔다. 화성 칠곡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 5년 전부터 한 달 한 끼 금식하며 모은 소중한 헌금이다.

김재홍 목사는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칠곡교회 시설을 개보수해주고, 나와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큰 도움을 줬다”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상황이 열악한 다른 교회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성 칠곡교회는 주일예배 참석 인원이 5~6명 정도인 전형적인 농어촌 미자립교회다. 50여 년 전 세워졌는데, 김재홍 목사가 30년 동안 시무하고 있다. 교회 시설이 노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재홍 목사는 신우요관암, 사모는 폐렴유화증에 걸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도움을 줬다.

/ 정현주 기자

전도본부, FCA KOREA와 스키캠프

FCA KOREA와 온누리교회 전도본부가 ‘2020 FCA 스키캠프’를 지난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토)까지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개최했다. 차세대(2008년~2010년생) 16명이 참가했다. 이번 FCA 스키캠프에서는 스키기술을 배우고, FCA 허들(소그룹 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삶과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

는 시간도 가졌다.

FCA KOREA와 온누리교회 전도본부에서는 스키 레벨1 이상 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다.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는 1954년 미국에서 설립된 스포츠 선교단체이다.

문의: 02-3215-3214
sohyun93@onnuri.org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90일 동안 성경일독을 할 수 있는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반’이 3월 4일(수) 개강한다. 1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깊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9041-5538

프리덤스쿨 참가자 모집

회복사역 프리덤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회복의 여정으로 초대, 자유와 구원의 능력, 견고한 진, 4R기도, 분노, 두려움, 수동성, 수치심, 거절감, 불의의 영향력, 신자의 권위 등을 주제로 10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3월 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 15만원. 문의: 010-3896-2477

NGO 더멋진세상, ‘미얀마 어린이 희망 캠페인’

초등학교 기숙사비 및 1인당 매월 3만 원 후원

NGO 더멋진세상이 미얀마 프라미스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희망캠페인 후원을 모집한다. 프라미스홀은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다. 프라미스홀에

는 초등학교 20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고아다. 미얀마 어린이 희망캠페인을 통해 초등학교 기숙사비 및 학생 한 명당 매월 한화 3만 원 정도를 후원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2000선교본부 미션 컨퍼런스

2000선교본부가 지난 1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를 주제로 ‘2020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한충희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 이승배 장로(2000선교본부), 조대식 장로(마포공동체)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 270여 명이 참석했다.

2020 미션 컨퍼런스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조대식 장로, 한충희 목사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2020 아웃리치 강조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리더십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권면했다.

와이미션 참가자 모집

서빙고, 양재, 부천, 양지 개강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토요일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콘서트홀, 양재 목요일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드림홀, 양재 토요일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 50분 양재 드림홀, 부천 주일반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

주 주일 오후 4시 시온홀, 양지 주일반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스크린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서빙고, 양재, 양지 6만 원, 부천 2만 원.

문의: 서빙고(010-9663-3292)
양재 목요(010-7477-5874)
양재 토요(010-6340-2427)
부천(010-3374-2919)
양지(010-7254-2242)

시리아 난민 생계자립 돕는 노트북 후원 모집

SWIM(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에서 시리아 난민 생계자립을 돕는 노트북을 후원받고 있다. 작업용 노트북은 RAM 8GB 이상, 프로세서 Intel i5 이상, 모니터 15인치 사양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와 SWIM이 협력하

고 있는 ‘시리아 난민작업팀’은 터키 이스탄불과 가지안테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시켜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문의: 070-4940-1850
/ 김영선 기자 k4453@onnuri.org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9199	최진미	Harmony	1139256	김미숙	인천 미추홀
1139211	김현숙	양지 서누리	1139267	김승준	허브
1139224	김일홍	양재	1139268	이환	허브
1139225	김순옥	양재	1139270	박준수	서초B
1139228	최선미	인천 동누리	1139277	김형민	수원 북누리
1139234	정재숙	강남E	1139279	이장순	한강
1139245	김민지	W	1139286	신현숙	강남D
1139246	김홍수	양재	1139294	정연아	양재
1139253	김정연	강남C			

■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 수료 간증



/ 김세원 자매(강동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각종 강의 홍보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 유독 내 눈을 사로잡는 강의가 있었는데 바로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이었다.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솔직히 엄마가 같이 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엄마는 예배를 드리지만 했지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조 편성조차 허투루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각자의 삶과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들을 통해 공감하게 하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서로 격려하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다.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에서 내준 생활숙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했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자책감에 빠졌었는데,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에서 매주 내주는 생활숙제를 하고 나누면서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와의 관계회복이었다. 엄마와 크고 작은 오해가 참 많이 쌓여있었다. 서로 작은 부분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해 있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내 기분에 따라 부모님을 대했다.

그러나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을 들으면서 성경읽기를 시작하고, 매주 내주는 생활숙제를 엄마와 함께 점검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니 부딪히는 일들이 적어졌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사랑과 격려로 나를 다시 일으키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확실한 만남만을 바라고 있었다.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을 수강하고 나의 기도를 하기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서빙고 수요 비전통독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순간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문의: 010-9041-5538

■ 순장간증



/ 하세동 순장(인천 온누리교회)

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 귀국해서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베트남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과 베트남어예배를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순장을 맡게 되었다. 내 시간을 잃기가 싫어서 순장 제의를 거절했지만 말을 수밖에 없었다. 순장을 맡은 이후 순원이 워낙 많아 분순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순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12명을 넘지 않고, 예비 순장도 세워지지 않아서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에 많은 순식구들이 참석했다. 단체사진을 찍는데 한 장로님이 ‘순이 아니라 다락방 같다’고 하셨다. 담당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예비순장이 세워지고 분순이 결정되었을 때 나는 뜻 깊은 이벤트를 만들고 싶었다. 뉴욕거리 전도사 지용훈 목사님과 최근 TV에서 보았던 버스킹이 생각나서 마지막 순예배를 버스킹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답사도 하고, 피켓도 주문했다. 순모임 버스킹에서 사용할 전도지와 “Do You Know Jesus”라고 적힌 피켓을 순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분순의 필요성을 나눴다. 순예배를 마칠 무렵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분순 추천도

마지막 순예배 버스킹

하고, 버스킹에 대해 의논했다.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새로 세워진 예비순장님을 중심으로 토요일 동네 주변 사거리에서 찬양과 전도 버스킹을 하기로 했다. 버스킹 바로 직전까지도 교회 행사와 시간이 겹쳐 걱정했는데 감기가 든 한 분을 제외하고 예정된 순원 모두가 참석했다. 첫 곡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느낀 감동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모두 부끄럼 없이 큰 목소리로 찬양했고,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비순장님 부부가 준비한 핫팩과 내가 준비한 온누리교회 전도책자를 행인들에게 열심히 나눠줬다. 순원 모두 한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전문적인 버스킹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작은 몸짓과 목소리로 퍼져나간 울림이 듣는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많은 분들이 전도책자와 핫팩을 받아갔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우리 순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최은주 집사(강남C공동체)

대학 졸업 이후 마취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사람의 몸이 한 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명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설계에 의해 태어난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설명하기에는 내 지식의 한계가 많이 느껴졌다. 그래서 창조신앙스쿨과 창조신앙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치즘이나 공산주의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설계도인 DNA와 그들의 조합에 대해 들으면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이로워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자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

분명 이 모든 것을
누군가 만들었다

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주신 자녀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많은 화석의 증거들과 돌연변이로는 새로운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알게 되었다.

창조신앙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들로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지 못했던 증거들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힘들지 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자연 속에 주셨고, 많은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히 3:4).

■ CGNTV 세라핌합창단 단원간증



/ 정해원 학생(CGNTV 세라핌합창단)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사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믿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CGNTV 세라핌합창단의 찬양을 듣게 됐다. 찬양을 조용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왜원아 너도 나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인 것 같다. 그 당시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이후 내 신앙이 확실해졌다.

CGNTV 세라핌합창단 입단한 후부터 하루하루가 달랐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더라도 찬양을 하면 그 힘들던 마음이 잠잠해졌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래하는 천사 CGNTV

하나님 전하는
노래하는 천사

세라핌합창단과 함께 하고 있다.

CGNTV 세라핌합창단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년 말씀이 닿지 않는 곳으로 선교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태국이었다. 태국 아웃리치에서는 태국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했다. 고아원과 현지 학교에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방문했던 많은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태국의 한 크리스천 학교였다. 미션스쿨이지만 그곳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내가 CGNTV 세라핌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CGNTV 세라핌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회복사역 행복반 50기에 진입하며



성명영 장로
(회복사역 행복반 담당)

“장로님, 그간 잘 계셨지요? 저는 요사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시원 월세를 제가 벌어서 내고 있고요.”

50대 후반 A형제가 사뭇 떨리지만 밝고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혼 이후 거의 20년 이상 술 중독으로 여러 병원과 기관을 전전궁금했다. 퇴원해서는 고시원에 머물렀다. 고시원 월세는 결혼한 여동생이 내주는 상황이었다. A형제는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배우자, 부모님, 심지어 하나님을 탓했었다. 그런 그가 행복반 훈련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주변을 타자기보다는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회복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이혼한 전 부인과 성장한 자녀들에게 10장 이상의 눈물의 사과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전 부인과 합쳤으면 한다고 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왔다. 이런 마음과 심령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평상시에는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던 자신이 새벽기도 시간이 쏠처럼 달콤하고, 1시간 이상을 거뜬히 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님과 그의 교제를 기대하며 새벽을 기다린다고 했다.

B자매는 40대 초반이다. 광포(狂暴)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지해주시 않는 남편과 1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당했다. 외로움과 거절감의 연속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을 힘들게 다녀야만 했다. 그러다가 그만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삶이 너무 버거워 과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등 수차례 자살 시도도 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B자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행복반을 찾았다. 12주간의 행복반 기간 동안 자신은 허드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임을 깨달았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목재 즉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영혼 깊숙이 경험했다고 고백해왔다.

“늘 허무하고, 거절당하고, 작아지기만 하던 제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변의 영혼들이 행복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2005년 봄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50세가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상습적으로 나 자신을 포장, 위장, 가장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 뿌리를 발견했다. 놀라운 것은 낮은 자존감을 제공했던 원인들이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들과 나에게 수치심을 제공한 사건들을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하며 비로소 묵암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성령님은 내 안의 여러 실수와 죄악들을 세세하게 회개 시키셨다. 무엇보다 나의 회복에 중요하게 일조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알게 된 사건이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해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를 그분의 눈동자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이미 용서하신, 육신의 부모보

행복, 그 이후

다 더 부모인, 머리카락을 세시고, 앓고 섬을 아시고, 살아계셔서 매일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며 주변을 돕고 싶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형 회복 워크북’이 필요함을 느꼈고, 수년에 걸쳐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리고 이 교재로 지난 6년간 우리 부부와 인도자들과 함께 회복사역 행복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서빙고와 양재는 물론 문산의 군부대, 인천의 술중독 입원병동, 안산의 여러 교회들, 오사카, 베이징 등지에서 행복반이 열렸다.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과 자살충동, 강박, 공황장애 등으로 인생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 중독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반을 찾아와서 회복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붙잡기 시작했으며, 다시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 멋지게 복귀하고 있다. 행복반 그룹의 미혼 형제자매들이 행복반을 수료하며 결혼도 여러 쌍 했고, 그 중에서 여덟 커플의 주례를 맡는 영예도 안았다. 처음 행복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몇 개의 행복반 그룹을 인도하고 마지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새 행복반 50기까지 왔다. 그간 행복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회복을 시기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끄시며 회복을 완성시키신다. 부언하자면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 또는 행복이라는 선물 패키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깊이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된

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정, 일터, 사역, 관계, 재정 등 여러 영역에서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

각 개인의 지문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각자는 삶에서의 적용방안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 말씀을 받았더라도 단 한 번 만에 우리의 생각과 언행,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말씀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고 싶지 않으나 하게 되고, 하고 싶으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최초로 디자인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함은 물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은 자(은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타인의 잘못을 세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연약한 지체를 보호해주고, 신뢰하는)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크고 작은 고난과 고초가 밀려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들을 신뢰하며 알아가고,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결자인 주변의 형제자매들 특히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뵈을 때까지. 아멘.

신앙에세이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강현아, 가서 전구 좀 교환해 오거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극히 내성적인 아이였다. 일단 아버지의 명이니 집을 나섰으나 내 마음은 심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한 번 산 제품, 개봉한 제품을 바꿔 달라고 하면 엄청 욕먹을 텐데...”

나는 전파사에 도착해서 가져온 A제품을 B제품으로 교환해달라는 말 대신 B제품을 사러 왔다고 아저씨에게 말했다. A보다 B가 더 비싸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활용했다. 교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안심하며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교환이 안 되어 사 왔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그 전파사 전화번호를 알아 오라고 나를 다시 보내셨다. 큰일 났다. 거짓말이 들통 날 위기다. 아버지는 포병장교였다. 신상 필벌이 분명한 분이다. 거짓말이 들통 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 불 보듯 뻔하였다.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러 가는 시간까지가 매우 길었다. 지금도 그 긴 시간이 느껴질 정도다.

거의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나는 아버지께 전화번호를 드렸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다. 통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교환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일 것이다. 통화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살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 같은 매서운 눈빛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좌불안석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고개를 꼭 숙이고 잘못에 상응하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떨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서 전구 교환해 오거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왜 안 때리시지? 아,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때리시려나?’ 생각했다.

우선 위험지역을 벗어나 집을 재빨리 나섰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다. ‘전파사 주인아저씨는 얼마나 격렬한 눈초리로 나를 보실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다. 아저씨는 그냥 말없이 전구를 교환해주셨다. 표정에서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전구를 받으셔서 작업을 시작하셨다.

아버지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시기보다 사랑과 온유로 선대하신다. 만일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 그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한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사랑으로 허다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신다(잠 10:12, 벰전 4:8).

신기하게도 나는 그 사건 이후 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적과 질책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육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오른다. 6살 때 아는 형 집에서 휴대용 게임기 ‘스페이스호크’ (3만원)가 너무 재밌어서 유치원 가방에 담아왔다. 집에서 몰래 하다가 여동생에게 발각되었다. 여동생이 고자질해서 어머니가 알아버리셨다.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 게임기 주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셨다.

“강현이가 장난감을 빌리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나봐. 이제 돌려줄게.”

두 분 모두 웃으시면서 대화하셨다. 돌려주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백화점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서 같은 게임기를 사주셨다. 어머니는 대충 알고 계셨다고 한다. 내가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가서 “엄마, 유치원 가방 절대로 열면 안 돼요. 절대로”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교육한 어머니 덕분에 이 도둑질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도 사랑과 온유로 교육하고 양육하며 서로를 대하면 좋겠다.

Acts 29

게시판

2020년 2월 9일(주일) | 제1281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영어) 주일 16:0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인애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울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안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훈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2020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안내 일시: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서빙고, 양재캠퍼스 모두 서빙고에서 진행) 예약자격요건 :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와 등록교인이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예약가능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형제나 친척의 대리 예약은 불가함) 준비사항: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예비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 선정방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추첨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시기 바라며, 오후 7시 이후 입장 하시면 순번추첨 예약이 모두 끝난 후 접수 받습니다. 당일 결혼추첨행사 참석 전에 미리 결혼예배 일자를 2-3개 선정하여 참석 요청합니다.) 문의: 서빙고(최연희 02-3215-3179) 양재(배현서 02-570-750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영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2일 재개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브릿지33+ 예배팀 밴드팀원 모집 모집: 건반, 드럼,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문의: 이수준(010-6398-6022) 브릿지33+ 성가사 모집 문의: 변성우(010-5055-4031) 인천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모집: 시설관리담당 및 행정업무 1명(남) 문의: 신상민 간사(010-8469-1091)
--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학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제네) 오후 7:00 분당 / 북한민 주일 11:00 은유홀 / 다문화 토요일 12:00 은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2/2.9.16.23: 컨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텐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SOON

CGNTV

유튜브 SOON 채널 신규 콘텐츠

썬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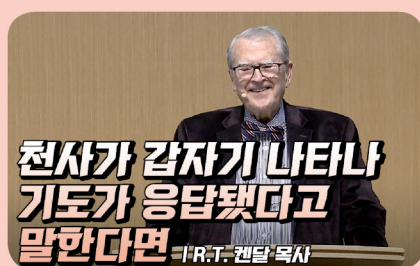
크리스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진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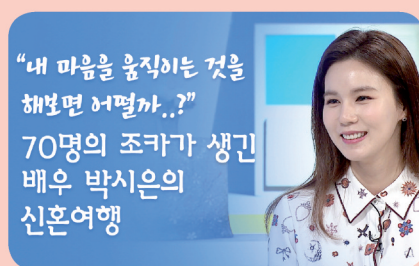
출연 김남국 목사, 이성호 목사, 개그우먼 조혜련 외

유튜브 'SOON'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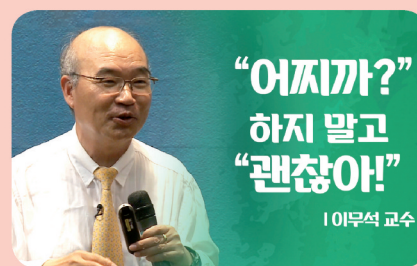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순(SOON)수' 채널, SOON



말씀의 핵심만 쏙쏙 담은
3분 메시지



멘토들의 간증과 연예인들의 인생찬양
컬처클립



삶과 신앙의 노하우를 전하는
하우스쿨

매주 월, 수, 목, 토 오후 6시 새로운 영상 업로드
유튜브에서  CGNTV SOON   하세요